



“올 시즌 마지막 V샷 일본서 날리겠다”

한국의 지존에서 세계의 지존으로 입지를 다진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올 시즌 마지막 목표에 도전한다. 올해 한국 3개 메이저대회와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27일부터 나흘간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 골프장(파72·6천442야드)에서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 마지막 메이저대회 리코컵 대회에 출전한다. 신지애는 지난 10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대회에서 우승한 뒤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도 우승했으니 일본 메이저대회도 석권하고 싶다”라는 야심에 찬 목표를 밝혔다.

신지애, 내일 JLPGA 메이저 리코컵 출전

日상금왕 노리는 이지희와 정상 다툼 예상

리코컵 챔피언십은 올해 일본투어 우승자와 지난 주 끝난 에리에르오픈까지 상금 랭킹 25위 이내 선수들만 출전하는 시즌 최종전이다. 총상금 1억엔에 우승 상금 2천500만엔이 걸려있다. 지난해 우승자 고가 미호를 비롯해 올 시즌 상금 랭킹 2위를 달리는 요코미네 사쿠라 등 경쟁한 실력을 갖춘 일본 선수들이 출전해 신지애와 경쟁한다. 신지애는 우승을 할 때마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

서 우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운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한국대회에서 7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렸을 뿐 아니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도 우승 한번에 준우승 세번을 한 성적만 봐도 우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LPGA 투어와 JLPGA 투어가 공동 개최한 미즈

노클레스 우승까지 포함한다면 신지애는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 다섯 차례 출전해 우승 두번과 준우승 세번을 한 셈이다. 일본 선수들과 기량 차이는 이미 확인됐고 오히려 신지애의 강력한 라이벌은 한국인 최초로 JLPGA 상금왕을 노리는 이지희(29·진로재팬)다. 올해 2승을 수확한 이지희는 현재 1억1천786만엔으로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요코미네(1억170만엔)와는 1천600만엔으로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지희는 “우승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부담감을 (우승을 위한)에너지로 바꾸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천하장사 씨름 ‘부활’

명맥 끊긴지 4년 만에
내달 11일부터 남해서

2004년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던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4년만에 부활한다. 대한씨름협회 민속씨름위원회는 내달 11일부터 사흘간 경남 남해에서 2008 남해통합장사 및 천하장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량급과 경량급을 묶어 치르는 통합장사전(11-12일)과 체급에 관계없이 올 시즌 최고의 장사를 뽑는 천하

장사대회(13일)로 치러진다. 민속씨름위원회는 올해 다섯개 대회 성적을 토대로 시드를 배정받은 8명과 예선을 거쳐 올라온 8명을 10일 맞붙게 한 뒤 8명을 최종 선발해 13일 천하장사를 가리도록 했다. 우승 상금은 5천만원. 천하장사는 모든 씨름대회를 통틀어 최강자라는 뜻으로 통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민속씨름 초창기에는 1년에 3-4차례, 1995년부터는 1년에 1차례 대회가 열려 천하장사를 뽑았으나 프로팀단이 잇따라 해체되면서 대회가 열리지 않아 2004년 김영현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다. /연합뉴스

‘환상의 복식’ 이용대-이효정 조 16강행

배드민턴 홍콩오픈 슈퍼시리즈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에 빛나는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콤비가 2008 홍콩오픈 슈퍼시리즈에서 16강에 올랐다. 이용대-이효정 조는 25일 홍콩 켈렐리 자베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32강전에서 말레이시아의 평순환-류잉고 조를 2-1(21-15 20-22 21-16)로 꺾고 16

강 진출에 성공했다. 유연성(원광대)과 김민정(군산대)이 짝을 이룬 혼합복식 조도 홍콩의 통춘위-윙가링 조를 2-0(21-13 21-8)으로 제압하고 16강에 합류했다. 여자복식의 김민정-하정은 조는 홍콩의 몽란이-응카순 조를 2-0(21-12 21-10)으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랐으며, 배연주(성지여고)는 여자단식 예선 2회전에서 푸퉁옌(홍콩)을 2-0(21-11 21-13)으로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K3리그 ‘승부 조작’ 사건 진상 조사

중 도박업자에 돈 받고 실수 남발

대한축구협회가 아마추어 축구리그인 K3리그에서 발생한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축구협회는 25일 김재한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조사와 별도로 K3리그의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승부조작 내용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승부조작 실체를 파악하고 나

서 결과를 상벌위원회(위원장 이갑진)에 넘겨 해당자들을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 상벌 규정상 경기 조작과 뇌물 수수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상의 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다. 한편 K3리그 소속의 일부 선수가 중국 도박업자로부터 100만~250만원을 받고 패스 미스를 남발하거나 수비를 느슨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선수 1명과 브로커 2명이 구속되고 선수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울산

오늘 K-리그 준PO

전북



루이지뉴



브라질리아



알미르

‘용병’ VS ‘토종’ ‘공격 3인’ 대결

‘토종과 용병의 공격 삼각편대 대결’ 26일 오후 7시30분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삼성화재 K-리그 2008 준플레이오프는 외국인 선수와 토종으로 뚜렷이 구별된 양팀 공격진의 뜨거운 득점포 경쟁이 될 전망이다. 울산은 지난해 K-리그 챔피언인 포항 스틸러스를 승부차기 끝에 잠재웠던 6강 플레이오프 당시 중앙 스트라이커부터 좌우 측면 공격수까지 3명의 선발 공격진을 모두 브라질 출신으로 채웠다. 원톱 요원인 루이지뉴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올린 울산의 간판 공격수. 루이지뉴뿐만 아니라 브라질리아(19경기 3골 6도움)와 알미르(15경기 6골 2도움)도 활약을 이어가 이들 3명의 용병이 뭉치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특히 루이지뉴는 전북과 올 시즌 4차례 대결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어 최전방에서 해결사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공격진은 국내파 일색이다. 전북 공격의 중심은 일본 J-리그 생활을 마치고 올 시즌 K-리그로 돌아온 조재진이 차지하고 있다. 조재진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통틀어 10골을 쏴 올리며 성공적으로 K-리그에 복귀했다. 울산과 대결에서는 2골 2도움으로 유난

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여기에 좌우 측면 공격은 국가대표 출신인 정경호와 최대욱이 이끈다. 타고난 공격 본능과 빠른 발을 이용한 돌파가 강점인 이들이 울산 수비진을 얼마나 흔들어놓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양팀의 주전들이 친정팀에 비수를 꽂을 지도 관심이이다. 울산의 염기훈과 박동혁은 전북에서 편 적이 있다. ‘원발 스페셜리스트’ 염기훈은 2006년 전북에 입단해 신인왕을 수상했고, 지난해 여름 동남아 4개국에서 열린 아시안컵에 다녀온 뒤 울산에 등지를 틀었다. 2002년 전북에 입단해 2006년부터 울산에서 뛰는 박동혁은 ‘골 넣는 수비수’. 7년 동안 202경기에 출전해 21골을 넣었다. 전북의 경우 최강희 감독부터 울산 출신이다. 1983년 포항제철에 입단한 최 감독은 이듬해 이적하고 1992년 은퇴할 때까지 아홉 시즌을 울산에서 보냈다. 주장인 정경호는 2007년 초 광주 상무 제대 후 울산으로 복귀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 같은 해 8월 염기훈이 들어오면서 전북으로 맞트레이드됐다. 2006년 울산에서 전북으로 옮긴 ‘프리킥의 마술사’ 김형범은 올해 울산전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연합뉴스



조재진



정경호



최태욱

K-리거들, 대거 일본행 가능성

J리그 내년부터 ‘애크터제’ 도입
이상호·조원희·이정수 등 거론

일본 프로축구 J-리그가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와 별도로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소속 선수 1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아시아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아시아쿼터제 도입에 따라 이상호의 영입을 통해 득점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김남일이 뛰고 있는 빙셀 고베가 조원희(수원)의 영입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정수(수원), 황재원(포항), 박동혁(울산) 등도 J-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어급 선수들의 일본행이 줄을 이룰 전망이다. K-리그 선수들의 일본 진출 시도는 국내

드래프트제 부활과 아시아쿼터제 도입으로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드래프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팀에서 뛰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해외진출에 눈을 돌린 아마추어 선수들이 경쟁적으로 일본 무대를 노크하고 나섰다. FA(자유계약) 자격을 얻는 대표급 선수들 역시 이적료 문제없이 팀을 떠날 수 있어 J-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2006년 초에는 청소년대표 출신 공격수 강효와 미드필더 김태연이 빙셀 고베, 미드필더 조우진이 산프레체 히로시마에 입단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는 20세 이하 대표 출신 수비수 배승진이 요코하마FC에 입단하고 나서 올해 2부리그 자스과 쿠사츠로 임대됐고, 스트라이커 김동섭(시미즈) 등 기대주들이 일본으로 진출했다. 또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했던 경희대의 장신 수비수 김근환(22)도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 에이전트는 “아시아쿼터제 도입으로 일본 구단들이 FA(자유계약) 자격을 얻는 K-리그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을 대거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